

張老前人成道 一週年追思



◎ 金義雄總務院長
中譯：張寶元

後學謹為張老前人成道一週年呈上悼念詞

張老前人大德突然從我們的身旁離開了，聽到您老歸空的消息就如昨日一般，想不到時間飛逝之快，如今已將過一年了。

去年參加您老告別式的時候，看到以馬英九總統為首，社會各界人士、分布於台灣各地的各宗教代表，以及世界各國一貫道道親們前來悼念的盛況，全世界都對您老生前所留下的德化充滿著感激。

您老更是事先在韓國和台灣道親間的友好關係裡已準備好基石，透過持續性地交流，致使大道能蒸蒸日上地發展。

金老前人每每為了韓國道務邀請您老時，您總是將忙碌的行程向後推延並立即前來韓國，和我們結下了很深的緣份，這因緣也讓我們韓國道親們永遠無法忘懷。

就算歲月如風一般飛逝，您老為道獻身的過往與歷史是無法被忽視的，現在也再一次地浮現在我們的眼裡。

장노전인 성도1주기를 추모하며

◎ 김의웅총무원장님
번역자 : 장보원

삼가 장노전인 성도1주기를 맞아 추모사를 올리겠습니다.

장노 전인께서 홀연히 저희 곁을 떠나셨다는 귀공 소식을 접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장노전인께서 홀연히 저희 곁을 떠나셨다는 귀공 소식을 접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일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작년 님의 영결식에 참석 하였을 때 마영구 총통을 비롯해 사회 각계인사와 대만에 분포된 각 종교대표, 또 세계 각국의 일관도친들의 조문단 일행을 지켜보며 님께서 살아생전에 남기신 덕화가 충만하셨음에 감격하였습니다.

님께서서는 더욱 한국과 대만 도친 간의 우호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김노전현대인께서 한국도무를 위해 당신을 부르실 때마다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곧바로 오셔서 저희들과 깊은 인연을 맺어주신 것을 한국 도친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세월은 바람처럼 지나갔어도 님께서 도를 위해 헌신하신 지나온 과거는 무시할 수 없음이 새삼 다시 보입니다.

您老時常面帶著和藹的微笑、有著敏捷的儀態，以及您過去總是散發著爽朗精神的樣子，如今都還歷歷在目。

在金老前人的要求下，您老和香港的蘇老前人於1982年一起來到韓國，共待了二十三天又二十二個夜晚，歷時將近一個月的時間裡，巡迴訪問全國的三十二個中堂，同時間也為了大韓民國的祖國統一而展開全國巡迴大法會，老前人您不顧身心疲憊，還為我們以簡單易懂的話語苦口叮嚀、說法成全我們，現在我們也將再一次把那些法語銘記在心，改掉不好的習慣與脾氣，並要為了成為嶄新的人而努力。

受到 師尊師母的命令，為了傳性理心法而犧牲一生的金老前人大德、張老前人大德、蘇老前人大德，他們的為道精神與尊師重道精神是我們所推舉讚嘆的，台灣與韓國的道親們要相互地手牽著手，並為了將一貫道的真天命大道傳向全世界，以及開啟大同世界，我們要盡最大的努力與力量。

祈求已聚集於無極理天的金老前人大德、張老前人大德、蘇老前人大德，請賦予我們力量並幫助我們，能讓我們的道務更加擴大、更加向前發展。

南無天元太保阿彌陀佛

2011年6月4日

大韓民國道親們一同向張老前人成道一週年呈上悼念

항상 고운 미소 머금고 재빠른 몸가짐과 명량한 기운을 전해주셨던님의 모습이 선하게 떠오릅니다.

김노전현대인의 요청으로 홍콩의 소노전인과 함께 1982년에 한국에 오셔서 22박 23일 동안 거의 한 달간에 걸쳐 전국 32개의 법단을 순회하시면서 조국통일기도 전국순회대법회를 열어 주실 때 심신의 고달픔도 아랑곳 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위해 쉬운 말씀으로 고구정녕(苦口叮嚀) 법어를 설하시며 성전(成全)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 법어들을 다시 새기며 나쁜 습관과 버릇들을 고쳐 새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존사모의 명령으로 성리심법을 전하시기 위해 일생을 희생하신 김노전현대인과 장노전현대인 소노전현대인의 위도정신과 존사중도 정신을 받들어 대만과 한국 도친들은 서로 손에 손잡고 일관도 진천대도를 전세계에 전파하여 대동세계를 열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극이천에 다 모이신 김노전현대인, 장노전현대인, 소노전현대인께서는 저희들이 도무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원력을 주시옵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천 원 태보아미타불

2011년 6월 4일

대한민국 도친 일동은 장노전인 성도1주기를 추모하며 올리웁니다.